http://doi.org/10.34227/tjocc.2020..20.89

혁신적 포용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시론(試論)적 논의*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안채린**

국문초록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혁신적 포용 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포용적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포용적 문화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과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는 아직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본 연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해 필요한 '포용적 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시론적 논의로서 먼저 <혁신적 포용 국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에서 '포용적 예술'과 연관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관련 분야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문화정책에 있어 '포용'과 '다양성', '형평성', '평등' 등의 개념을 보다 빠르게 활용해온 영국과 미국, 호주의 장애인 및 소수인종 문화예술지원 정책 사례를 살펴보며 <혁신적 포용 국가> 건설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소외계층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선진국의 장애인 및 소수인종 예술가들을 위한 국가 주도의 지원은 단순히 창작의 기회를 열어주거나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커리어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가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용'적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장애인 및 소외계층 예술가들의 리더십 및 커리어 성장을 돕는 국내의 정책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신적포용국가, 포용적문화정책, 장애인문화예술지원정책, 장애인예술가, 문화복지정책

---

* 이 연구결과물은 2020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Department of Cultural Contents, Kyungnam University)
접수일(2020년 11월 16일), 수정일(2020년 12월 4일), 게재 확정일(2020년 12월 11일)

Ⅰ. 들어가며

포용적 문화정책에 대한 국내 논의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 국가〉를 내세우며 제시한 〈포용 국가 비전 및 전략〉(2018.9.11)에서 문화정책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포함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에서 '전략 7'로 제시된 '인적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의 내용이 문화정책 영역에 속하게 된 이후, 혁신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문화정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시작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전문가 세미나〉와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혁신적 포용 국가'건설을 위해 필요한 문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애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 국가〉의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포용'은 기존의 사회 소외계층(다문화, 취약계층, 장애인, 노년층 등)에 대한 포용으로 넓게 논의되고 있다. 보다 명확히 한다면 국가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뒤처지는 사회적 소외 그룹이 없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을 '포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기본으로 하는 '포용적 문화정책' 관련 논의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 역량인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전제로 제시되었다.[1)]

'포용적 문화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과 내용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2019년 10월 문화관광연구원이 발간한 〈혁신적 포용 국가 달성을 위한 문화정책 발전 방향 연구〉에서는 '포용'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지만

1) 조현성·연수현, 「혁신적 포용 국가 달성을 위한 문화정책 발전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70쪽.

궁극적으로 문화 정책적 측면에서 '포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포용적 문화정책'의 내용으로 제시된 것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문화 다양성 제고, 소외계층 문화향유,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등 기존의 문화예술 복지 정책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도 '포용 사회 확대'를 위한 국가 정책 연구는 지속적으로 강조될 전망이며, 문화 정책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포용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포용적 문화정책'에 대한 개념적 논의, 그리고 기존의 문화예술복지 정책과 차별되는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해 필요한 '포용적 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시론적 논의로서,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관련 분야 정책의 현황과 방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분야는 지금까지 국내의 다양한 사회적 소수 그룹 중 '포용적 예술'과 연관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영역으로 포용적 문화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상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주요 분석 사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문화정책에 있어 '포용'과 '다양성', '형평성', '평등' 등의 개념을 보다 빠르게 활용해온 영국과 미국, 호주의 장애인 및 소수인종 문화예술지원 정책 사례를 살펴보며 국내의 포용적 문화정책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외사례의 주요 조사 방법은 2차 문헌 조사 방식을 토대로 하였으며, 유네스코의 〈문화표현의 다양성(Diversity in Cultural Expression)〉[2] 홈페이지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이하 ACE), 미국 국립예술기금위원회(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미국 Americans for the Arts (AFTA), 호주 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이하 ACA) 등의 공개 자료를 위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

2) 유네스코, https://en.unesco.org/creativity/(검색일 2020년 10월 21일).

Ⅱ. 혁신적 포용 국가와 포용적 문화정책의 개념

1. 사회투자 국가의 등장

혁신적 포용 국가의 개념은 유럽형 사회투자국가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복지의 발전까지 강조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사회투자 국가는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포드주의 생산체제[3]의 이론에서 벗어나는 현상들 목격되며 등장하였다. 생산성이 향상하면 결과적으로 고용과 임금이 상승된다는 포드주의의 기본 이론과 달리, ① 선진국들에서 내구 소비재 시장이 포화하면서 더 이상 신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게 되었고, ② 소득 증가로 인해 시민들이 기초적 삶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에서 벗어나 삶의 질적 측면을 중시하게 되면서 서비스업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기계의 사용을 통해 생산성을 도모하기 힘든 서비스업의 특징으로 인해 기존 모델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서비스업의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충분한 임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③ 경제적 세계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웃소싱(외부기업 위탁 생산)이 보편화되면서 내부생산을 기준으로 하였던 포드주의적 축적체계가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선진기업은 원천기술을 만드는 등의 핵심적 인재가 아닐 경우 직접 고용할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4]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고,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가 급변하게 되고, 새로운 방식의 복지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졌다.

사회투자 국가의 사회투자 전략의 특징은 ① 사회 지출을 통해 사회통

---

3) 평생 고용의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기계 확대→생산성 향상→상품가격 하락, 임금 증대→상품 수요 증가→투자 증가→고용 확대'의 과정이 선순환을 이룬다는 이론으로 생산성의 향상이 곧 고용·임금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본다(조현성·연수현, 2019).

4) Wren, A. & Iversen, T.,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50(4), 1998, pp. 507-546.

합과 평등을 달성하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② 생애주기별 접근의 사회투자를 강조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적자본개발과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여 구조적 실업 문제 등에 대응하고, ③ 생애주기별 사회투자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보육 및 교육에 집중하고, 청장년기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략에 투자하고, 노년기에는 재활 및 돌봄 정책에 집중한다는 것이다.[5] 결국, 사회투자 전략은 인적자본 개발 정책과 사회보장, 노동시장 활성화의 세 박자가 균형적으로 결합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투자국가 개념은 궁극적으로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용의 질보다는 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포용 국가 또는 포용 성장 등의 표현이 유럽 및 국제기구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유럽의 포용 국가 또는 포용 성장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회투자국가의 개념과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6]

2. 혁신적 포용 국가의 개념

혁신적 포용 국가의 개념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 경제나 정치 영역에서 빠르게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추격했지만, 그에 비해 복지제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으며, 노동시장의 불안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확대되면서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안전망으로 포섭되지 못하는 노동 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급여 수준이 낮고 직업적 안정성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실업자는 근로소득을 지속해서 획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즉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에 맞지 않더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이는 개인의 소득 및 직업적 안정성 문제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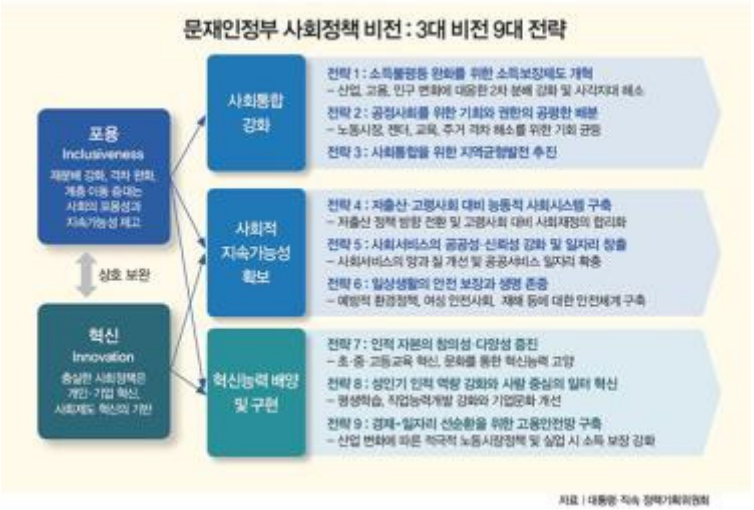
5) Leoni, T., "Social Investment as a Perspective on Welfare State Transformation in Europe". *Intereconomics* 51,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pp. 194-200, 2016.

6) 조현성·연수현, 「혁신적 포용 국가 달성을 위한 문화정책 발전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13~16쪽.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적자본의 낭비를 불러와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자동화, 인공지능 등의 발전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등 새로운 국가 성장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유럽의 사회투자 국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기존 복지제도의 수준이 많이 부족하기에 한국은 사회정책의 강화로 한국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높아진 포용성이 사회 전반의 혁신 능력을 높일 것이라는 상보적 관계의 모델로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혁신적 포용 국가는 사회투자국가의 기조를 공유하면서도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복지제도의 개선과 발전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7)]



〈그림 1〉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비전: 3대 비전 및 9대 전략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위키〈혁신적 포용 국가〉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검색일 2020년 10월 15일)

---

7) 조현성·연수현, 「혁신적 포용 국가 달성을 위한 문화정책 발전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19쪽.

3. '혁신'과 '포용'의 문화정책

문화와 관련된 국가 정책을 '혁신'과 '포용'의 유형으로 나눈다면, '혁신'과 관련된 문화정책은 경제적 수익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진 문화콘텐츠산업 또는 창조산업 관련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포용'과 관련된 문화정책은 문화복지 정책과 가장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문화복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정책'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으로 이해되는데, 특히 후자의 개념이 일반적 의미의 '포용'과 연결된다. 저소득층의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은 정부의 성격과 상관없이 지속해서 펼쳐져 왔으며,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제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과 생활 문화 등의 개념을 강조하며 일상의 문화향유 증진 정책이 시도되었으며, 시민들의 문화예술동호회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지만, 그 성과는 초기의 목표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포용'을 통해 '혁신'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 비전을 기존의 문화복지 개념에 적용했을 때 명확히 차별화되는 부분은 '포용'적 문화정책의 '혁신'적 가능성에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혁신적 포용 국가의 관점에서는 볼 때 문화향유 확대 정책은 단순히 문화예술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머물러선 안 되며,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이끌 혁신적인 창의인재를 키워내 인적자본을 축적하겠다는 목표로 연결되어야 한다.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발굴을 위해 일차적으로 모든 사회 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맥락과 표현을 담고 있는 창의적 문화콘텐츠 발굴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보호의 목표 역시 다양한 배경과 출신을 가진 모든 국민의 인권 신장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의 혁신적 발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가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우선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문화적 '포용'은 결과적으로 더 큰 국가 '혁신', 즉 경제 발전을 동반한 국가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혁신적 포용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갖지 못한 사회적 소외 그룹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그룹의 문화 예술적 표현이 사회적으로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이 공존하는 사회를 구성함으로써 더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포용성을 높여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는 곧 포용적 정책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종호[8]는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적 문화 환경의 조성이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창의적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분리나 배제 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포용적 문화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지향하는 문화정책의 방향성은 결국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이 국가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 아래, 모두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문화 분야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사회 구성 그룹(장애인, 소수인종, 노인 등)까지 충분히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포용적 문화정책'의 방향성 아래에서는 소외되었던 사회적 그룹을 '포용'하는 것이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문화 다양성 제고 및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포용'적 문화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꼽히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 및 법률을 살펴보며 '혁신'적 문화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

8) 조현성·연수현, 「혁신적 포용 국가 달성을 위한 문화정책 발전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73쪽.

Ⅲ.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법률 및 제도 현황

1. 지원 법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 및 문화예술활동(창작 및 향유)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의 법적 근거는 헌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9] 그 중 법 조항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내용이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 15조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실질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 이어지는 데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호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제3조와 제8조에 걸쳐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6조 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

9)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13~14쪽.

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국내의 관련 법률은 문화 관련 법률과 장애인 관련 법률은 모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유형 중 '향유'와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현행 관련 법률이 장애인을 문화예술영역에서 예술가로서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대상이기보다, 타자가 만든 문화예술작품을 '향유'하고, 관객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으로서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은 문화예술 분야 중 창작, 조직 운영 및 경영 등의 영역에서는 주체적인 대상으로서 거론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사업 현황

1) 함께누리 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함께누리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 및 문화예술 역량 강화 교육을 기반으로 장애인문화예술의 공공성과 경쟁력 증진을 토대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예산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10], 2021년(안)에는 205억 원을 편성하여 장애 예술 공연장을 조성하고 장애 예술인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11].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0) 2014~2016년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의 건립으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11) 「장애인 예술지원 '함께누리' 205억원 투입」, 『에이블뉴스』, 2020년 9월 1일자.

〈표 1〉 2013-2018 함께누리 지원 사업 예산 내역(단위: 백만 원)

연번	세부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함께누리 지원 사업 총계		4,200	11,300	22,100	21,300	7,000	6,580
1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지원	1,750	2,950	2,950	2,950	3,150	2,930
2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950	900	900	900	900	900
3	한빛예술단 찾아가는희망음악회	300	400	400	500	450	–
4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 대전	100	150	150	150	150	450
5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400	400	400	400	500	–
6	장애인 예술경진대회	200	200	200	200	200	650
7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500	500	500	–	–	–
8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설립		5,300	15,800	14,800	–	–
9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개최		300	300	300	300	–
10	장애인 전통예술 지원		200	500	400	400	400
11	장애인 클래식 공연지원				400	400	400
12	장애인 무용전문인력 양성				–	250	–
13	장애인 국제무용대회				300	300	–
14	장애인 예술경진대회, 합창대회, 국제무용대회						650
15	장애인 문학상, 미술대전						100
16	장애인문화예술대상, 청소년예술제, 잡지발간						250
17	장애인 대중음악 공연 지원						450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p. 15; 문화체육관광부, 2019, p.11)

〈함께누리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과 장애인 예술가 및 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지원〉 사업은 (재)한국장애

인문화예술원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궁극적으로 장애인 예술가와 단체의 예술 창작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한다.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성화, 문화예술 향수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국제교류 활동 등 총 10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천만 원이 늘어난 39억 5천만 원이 배정되었으며,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2020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 세부 사업 내용(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 유형	기금 유형	사업 내용	예산	지원 대상	
					단체	개인
1	창작 활성화 지원	국고 보조금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예술 창작 및 발표 지원	1,000	장애	장애
2	문화예술향수 지원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지원	900	장애 비장애	–
3	커뮤니티 예술 활동 지원		동호회, 커뮤니티, 자조모임 등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200	장애	–
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지원	600	장애 비장애	–
5	국제교류 활동 지원	국민 체육 진흥 기금	장애인 예술가(단체) 국외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활동 지원	400	장애	장애
6	국외 리서치 활동 지원		장애인 예술가 및 기획자의 국외연구, 리서치 활동 지원	100		장애 비장애

출처: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 사업 설명회 자료집(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http://www.i-eum.or.kr:8090/u2/index.busan?contentId=29)(검색일 2020년 10월 16일)

장애 예술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크게 장애인의 문화향유·참여 지원과 장애인 예술가 및 단체의 육성 지원으로 나뉜다. 문화향유·참여

지원 사업 중 〈문화예술 향수 지원〉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나 전시 등 문화예술(음악, 연극, 무용, 다원예술, 시각예술, 문학) 행사 및 발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술단체를 지원하며, 비장애인 예술단체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장애인 단체가 주체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있다. 〈커뮤니티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이 주축이 된 예술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 속의 문화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예술가 및 장애인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중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원 예술 분야를 공연, 시각예술, 문학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년간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을 제출하는 장애인 예술가 및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 지원을 받는 장애인 예술가 및 장애인 예술단체는 공연·시각·문학 장르의 예술작품에 대한 창작비 또는 발표 진행비를 지원받으며, 개인은 최대 1천만 원, 단체는 최대 4천만 원의 지원금이 교부된다.

장애인 예술가 육성 지원사업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업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운영하는 예술단체를 지원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단체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당 최대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 예술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교류 활동 지원〉 사업은 국내 장애 예술가 및 장애인 예술단체가 국외 예술가 및 단체와의 문화예술 교류(협업)를 하거나 해외에서의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원 가능 분야는 공연(무용, 연극, 음악 등)과 시각예술로 한정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진행되는 전시, 아트페어, 레지던시, 작품 발표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개인일 경우 최대 1천 5백만 원이 지원되며, 단체에는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표 3〉 2020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기획공모 사업 내용(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지원 규모
장애인 특성화 축제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 대상 특성화 축제 기획 및 운영	200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장애인 미술가들의 작품 전시·판매 및 프로그램 운영	300
국제 장애인 미술교류전	국내외 장애인 미술가들의 기획 전시 및 협업 프로그램 등 운영	150
시각장애 문화예술 정보지 발행 지원 사업	시각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점자 등 정보 콘텐츠 제작	100

그 외에도 장애인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공모 사업으로 〈장애인 특성화 축제〉,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국제 장애인 미술교류전〉, 〈시각장애 문화예술정보지 발행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장애인 예술단체의 역량과 장애 예술가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동 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운영하는 사업 외의 〈함께누리 지원 사업〉 세부 내용 역시 일반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행사 기획, 장애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모전 및 대회 운영 등의 내용으로 압축된다.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이 단순히 일반 장애인 관객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예술단체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공모 기획 사업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창작 역량뿐만 아니라 문화기획 역량, 문화예술 조직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장애 예술인 집단의 자생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2) 서울문화재단 〈잠실 창작 스튜디오〉(지자체 – 서울특별시)

2007년 설립된 서울문화재단의 〈잠실 창작 스튜디오〉는 국내 최초이

자 유일한 장애인 예술 창작공간이다. 매년 정기공모를 통해 입주 작가를 선발하여 작업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예술가를 전문가(큐레이터, 비평가 등)와 매칭하고 외부 예술가와의 창작 워크숍 등을 지원하여 입주 장애인 예술가의 성장을 돕는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 예술가 지원과 장애 예술 인식 개선 및 활성화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장애인 예술가 지원 사업으로는 시각 분야 장애 예술인 입주 작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작업실을 제공하고 전문가와의 매칭,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굿모닝 스튜디오〉가 있다. 더불어 예술적 재능과 잠재성이 있는 장애아동을 발굴하여 멘토링을 진행, 결과물을 전시하는 〈프로젝트 A〉 사업을 진행 중이며, 서울문화재단에 속한 4개의 창작공간에 입주한 예술가들 간의 실험적 협업 작업을 지원하는 〈공동창작워크숍〉 등을 들 수 있다.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020년부터 시작된 장애·비장애인 동행 프로젝트 〈같이 잇는 가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위한 담론 형성과 장애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창작 방법론 모색을 위한 〈문화예술 오픈포럼〉 등이 있다.

3. 소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 및 제도는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업 예산은 꾸준하게 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의 수도 지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장애 예술인의 활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도 2005년부터 꾸준히 시도되어 2018년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

째는 일반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향유 확대 사업으로, 장애인들이 더 쉽게 예술작품이나 공연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작비를 지원하거나 공연·전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예술가 및 단체의 활동 범위를 해외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교류 사업도 큰 맥락에서 본다면 장애인 예술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협업을 도모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추가로 장애 예술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예술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여는 사업도 엿볼 수 있었다.

〈표 4〉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유형별 사업 사례

유형	사업 주체	사업명	세부 사업명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함께누리 지원 사업	문화예술향수 지원 커뮤니티 예술 활동 지원
장애인 예술가 및 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함께누리 지원 사업	창작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제교류 활동 지원 국외 리서치 활동 지원
	서울문화재단	잠실 창작 스튜디오	프로젝트 A 굿모닝 스튜디오 공동창작워크숍
장애예술 인식 개선	서울문화재단	잠실 창작 스튜디오	같이 잇는 가치 문화예술 오픈포럼

그러나 현행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 국가' 기조의 근본적인 방향성, 즉 문화 다양성에 대한 포용을 기반으로 국가 발전을 이끄는 경제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과 장애 예술인과 장애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그리고 비장애인과 사회 전반의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은 장애인의 생활을 이해하도록

하고, 장애 예술과 장애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활동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작업도 일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장애인 스스로가 중견 예술가 또는 리더로서 독립성을 갖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속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등의 사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장애인 예술단체의 조직적 발전을 위한 장기적 지원사업도 부재한 상태이다.

물론 장애인 예술가들도 예술 활동 증명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중견 예술인'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예술인 복지법〉은 문화예술 분야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여기에 장애인 예술가들의 활동 특수성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소수인종, 노인 등 문화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더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적 맥락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할 수 있는 커리어 개발에 더욱 초점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깊은 함의를 얻기 위해 해외의 문화 다양성 논의 및 주요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Ⅳ. 해외 논의

1.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약〉

문화 소외계층을 없애고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은 세계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흐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표현 다양성 보호 및 증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협약은 인종과 성별, 성적 취향, 장애의 유무 여부에 상관없이 누

구나 본인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이 모든 국제 사회 구성원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고, 2005년 10월 해당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행해 왔다. 2019년 6월부터는 협약 수행 정기 보고 규칙이 개선되어 149개의 회원국이 모두 관련 정책 실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12]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약〉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표 5〉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약〉 목표

조항 1. 목표
(a)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 (b) 문화가 번성하고 상호 유익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 (c) 문화 간 존중과 평화의 문화를 위해 세계에서 더 넓고 균형 잡힌 문화 교류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문화 간 소통을 장려 (d) 사람들 간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적 문화조성을 촉진 (e) 지역과 국가, 국제 사회가 모두 문화 표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 (f) 모든 국가의 개발(특히 개발도상국)은 각 문화와의 연결이 중요함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및 국제 사회는 문화-개발 간의 연결이 갖는 진정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g) 문화 활동과 문화 상품, 문화적 서비스가 인류의 정체성과 가치, 의미를 결정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됨을 인지 (h) 자국의 영토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책과 조치를 유지, 채택 및 이행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 (i) 문화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이 문화 표현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지원한다.

출처: Basic Texts of the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Unesco, 2015, p. 5) https://en.unesco.org/creativity/files/basic-texts-2005-convention(검색일 2020년 10월 16일)

12) UNESCO, “Freedom and Creativity: Defending Art, defending diversity”. Special Edition 2005 Convention Global Report Series, 2020.(검색일 2020년 10월 16일)

2005년 유네스코 협약의 기본적 방향성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조와 유사하다. 국가의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문화적 유산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아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창작과 향유 과정에서 문화표현의 다양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 구성원 누구나 지리적/사회적 배경이나 경제적 수준, 신체 능력 등에 상관없이 문화적 표현을 동등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문화 창작과 소비/향유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해당 협약을 실행해 온 주요 국가들은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소수인종, 성 소수자, 여성 등 사회의 주류에서 오래도록 소외되어 온 집단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펼쳐왔다. 문화 활동을 활용한 소외계층의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꾀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이 국가의 창의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해외 주요국가의 '포용'적 문화정책

영국은 2006년 신노동당이 '교육을 위한 창조 파트너십 정책(Creative Partnerships Policy for Education)'의 대표 아젠다로 '포용적 예술'을 제기하면서 '포용'이라는 개념이 문화 정책적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영국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사회적 포용 문제가 함께 제기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포용적 예술'은 사회의 소외계층과 비 소외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문화'를 뜻하며, 이는 영국 잉글랜드 문화예술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다.[13] 그러나 사실상 영국 문화정책 상에서 '포용'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그룹을 위한 문화정책 및 사업에 주로 쓰여 왔다. 보다 구체적

13) Arts Access Victoria, "Beyond Access: The Creative Case for Inclusive Arts Practice-Literature Review", 2015.(검색일 2020년 10월 20일)

으로는 장애인 창작자와 장애인 관객들에게 예술 창작 및 향유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될 때 '포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한편 문화예술 생산 및 향유 영역에서 소수인종이나 젠더, 연령층의 다양성을 높이는 문화정책 및 사업의 경우 '다양성(diversity)' 또는 '평등(equality)' 등의 개념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때 '포용'이라는 개념은 자주 활용되고 있지 않다.[14)]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포용적 예술 실천'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이외의 사회적 소외 그룹을 위한 특별한 문화 창작 및 향유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국립예술기금위원회(NEA)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를 따로 두고 있지만, 영국의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와 달리 '모두를 위한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 계획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15)] 그러나 민간단체이자 NEA와 미 의회 사이에서 문화예술지원기금 관련 로비 활동을 주로 펼치며,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 전반을 제시하는 Americans for the Arts(이하 AFTA)는 2016년 '포용적 예술'과 비슷한 의미로 '문화 형평성(Cultural Equity)'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AFTA는 2016년 〈Statement on Cultural Equity(문화 형평성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문화 형평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문화 형평성은 모두(인종, 나이, 장애, 성적 지향, 젠더, 사회경제적 지위, 지리적 위치, 시민권 지위, 종교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가 예술정책과 예술가 복지, 예술 접근성 제고, 활발한 문화표현의 장, 문화예술 생산과 재정, 정보의 공정한 유통을 위해 필요한 가치와 정책, 실천을 포함한다."[16)]

---

14) Arts Council England, "Investing in Diversity", 2016. https://www.artscouncil.org.uk/diversity-and-equality/new-strategic-investment-diversity-and-creative-case#section-1.(검색일 2020년 10월 20일)

15) Arts Access Victoria, "Beyond Access: The Creative Case for Inclusive Arts Practice-Literature Review", 2015.(검색일 2020년 10월 20일)

16) American for the Arts, "Statement on Cultural Equity", 2016.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about-americans-for-the-arts/our-statement-on-

이 성명서는 또한 미국 예술 영역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문화 형평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천명하고, 현재의 미국에는 소수의 권력 계층에게 문화에 대한 특권적 접근성이 부여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부목표와 4개의 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표 6〉 미국 AFTA '문화 형평성에 관한 성명' – 내부목표

연번	목표
1	정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문화적 의식(cultural consciousness)을 추구
2	정책과 시스템, 프로그램, 서비스, 조직 운영 과정 등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적 요소들을 인지하고 없앰
3	이사회와 구성원, 자문기관에서 리더십의 다양성을 확대

〈표 7〉 미국 AFTA '문화 형평성에 관한 성명' – 외부목표

연번	목표
1	문화예술기관 및 관객들의 문화적 의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학습 환경 마련
2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영역의 리더 인력풀을 개선
3	문화적 형평성과 관련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수행하여 진행 과정 모니터링
4	문화 형평성을 돕는 공공정책 및 민간 정책을 지원

호주 예술위원회는 '포용적 예술 실천'의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소외계층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배경과 맥락을 가진 예술가들이 함께 활동할 때 문화예술계 전반의 창조적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17] 그러나 호주는 영국이나 미국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cultural-equity(검색일 2020년 10월 20일)

17) Arts Access Victoria, "Beyond Access: The Creative Case for Inclusive Arts Practice-Literature Review", 2015.(검색일 2020년 10월 20일)

하는 문화예술정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으로, 2009년에 열린 문화 장관회의에서 처음 '보다 포용적인 사회'건설을 위해 장애인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실질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장애인 예술 지원 사업은 2014~2016년에 시행된 예술위원회의 '장애인 액션 플랜(Disability Action Plan)'이 시작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장애인 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포용적 문화정책 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영국, 미국, 호주에서는 소수민족의 문화 보호 및 소수민족의 문화 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포용'이라는 개념보다 '다양성', '형평성', '평등' 등의 개념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국가 주도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할 때 '포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사례 속에서 '포용'이라는 표현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 국내적 맥락을 공유하는 지점들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해외의 포용적 문화정책 사례 중에서도 장애인과 소수인종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살펴보며 '포용'이 사회적 '혁신' 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Ⅴ. 해외 주요국가 장애인 및 소수인종 대상 문화예술 지원 정책

1. 영국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이하 DCMS)는 2016년에 문화백서 「The Culture White Paper」를 발간하고 향후 추진할 문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문화백서는 1965년 교육부 산하 예술정책차관이었던 제니 리(Jennie Lee)가 처음으로 문화정책 백서를 발간한 후 50년 만에 발간된 것으로, 대처 정부 이후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 지속하여 왔던 영국의 문화 및 창조산

업 정책의 '문화적' 방향성을 제시, 향후 DCMS가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 방향성을 천명했다.

해당 문화백서는 '모두를 위한 문화(Culture for all)'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4개의 중점 목표-㉠ 모두를 위한 문화기회 확대, ㉡ 문화의 혜택을 모든 지역사회로, ㉢ 문화력을 통한 국제적 위상 고취, ㉣ 문화투자, 자생력, 개혁 - 를 제시하였다. 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가 한국적 맥락에서의'포용적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18)19)]

DCMS와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예술진흥 예산을 편성하는 영국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2015~2018년 동안 매년 1억 400만 파운드를 3년간 지원하는 전략기금 사업을 시작하고 총 5개의 세부 목표와 하위 사업을 구성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동일 사업을 2018~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표 8〉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전략기금 전체 사업 내용

연번	목표	상세 내용
1	도전성 및 수월성 개발 (Building ambition and excellence)	런던 외 지역 예술인, 기존의 창작 방식에서 벗어난 도전적인 프로젝트, 야외 예술, NPOs를 제외한 다양한 예술단체, 장애인, 인종 다양성 등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하게 예술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향유 확대 (Developing Reach)	투어 지원, 문화 소외 지역 집중 지원, 관객 개발 지원 등
3	변화 대응성 개발 (Building Resilience)	창작 활동 지속을 위한 인프라, 재원 개발, 역량 개발 등
4	차세대 참여 지원 (Engag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어린이 및 청년 예술교육 지원
5	박물관·미술관 전략적 지원 (Museum Strategic funding)	박물관 및 미술관 사업 지원

18) 최보연, 「영국 문화정책 백서 심층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19) 유지연, 「Creative Case for Diversity : 영국 문화 다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188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1) 장애인 예술가 지원 사업 – ‘Unlimited Ⅲ’[20]

장애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영국 문화예술영역 전반에 창조적 혁신을 위해 중요한 한 부분임을 강조하는 〈Unlimited Ⅲ〉는 장애 예술가들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장애인 예술가의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을 제작하고, 신진 장애인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경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멘토링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정된 장애 문화예술단체에는 또한 장애예술축제(언리미티드 축제, Unlimited Festival)에서 작품 시연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선정된 단체는 문화예술 분야 심포지엄, 워크숍, 토론회 등을 열고 장애인의 활발한 예술 활동을 위해 필요한 환경 마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2) 장애인과 소수인종 기반 문화예술기관 지원 사업 – ‘Elevate’[21]

〈Elevate〉 사업은 2014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진행한 〈평등 지수 분석 보고서〉에서 문화예술기관 중 흑인 및 소수인종과 장애인이 이끄는 조직이 매우 적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에 신설되었다. ‘Elevate’은 소수인종과 장애인들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지니는 예술가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그들이 이끄는 문화예술기관의 자생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 목표를 둔다.

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 분야 단체들은 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선발하거나 기존 직원의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직원 또는 이사회 임원들을 위한 교육 및 개발에 사업비를 쓸 수 있다. 기

---

20) Arts Council England, “Unlimited Ⅲ”, 2019. https://www.artscouncil.org.uk/funding/unlimited-iii#section-1(검색일 2020년 10월 25일)

21) Arts Council England, “Elevate”, 2020. https://www.artscouncil.org.uk/funding-finder/elevate(검색일 2020년 10월 21일)

관 활동을 통한 수익과 사회 공헌 활동을 보다 다층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으며, 사업 컨설팅 비용, 타 문화예술기관과의 파트너십 개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장애인과 소수인종 공연 창작자 양성 사업 – 'Change Makers'[22]

〈Change Makers〉는 문화예술기관 내의 중견급 인력풀 내의 인종 다양성과 장애인 채용 비율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조직을 선발하여 문화예술계 리더 조직의 다양성을 높이고 리더십 훈련과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소수 인종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문화예술영역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기반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장애인 및 소수인종 출신의 중견 공연제작자들이 커리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경험과 지식, 기술, 리더십 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선정 기관은 흑인 및 소수인종, 그리고 장애인에 해당하는 책임급 예술가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과 멘토링, 연구 방문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획하여 제출하였으며, 10만~15만 파운드 사이의 지원금을 배정받아 문화예술기관의 리더 인력 내의 다양성을 높임은 물론, 문화예술영역에서 오래도록 배제되었던 소수인종 및 장애인 예술가들의 경력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 흑인 및 소수인종 극단 지원 사업 – 'Sustained Theatre Fund'[23]

〈Sustained Theatre Fund〉는 중견급 및 신인 공연제작자 중 유색인종 및 소수인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국 잉글랜드 지역 내의 흑인 및

---

22) Arts Council England, "Change Makers", 2020. https://www.artscouncil.org.uk/fund/changemakers(검색일 2020년 10월 21일)

23) Arts Council England, "Sustained Theatre Fund", 2020. https://www.artscouncil.org.uk/funding/sustained-theatre-fund#section-1(검색일 2020년 10월 21일)

소수인종 공연전문가들의 전문 역량 강화 및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공연 전문 인력의 인종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흑인 및 소수인종 제작자의 역량 강화와 기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작공간 지원, 작품 R&D 및 창작 지원, 신인 및 중견 제작자의 경력 발전을 위한 트레이닝과 멘토링, 일자리 찾기 지원 등을 목표로 하였다. 총 21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총 5개의 파트너십 및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그중 두 곳은 런던 지역에 위치하였고, 미들랜드와 북부, 남동부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각각 1개씩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5개의 컨소시엄은 영국 공연산업 내의 BAME(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흑인, 아시안 및 그 외 소수인종) 공연전문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트레이닝 과정 등을 기획하였다.

2. 미국

정부 주도의 문화예술정책을 펼치기보다 민간차원의 문화예술지원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포용적 문화정책과 유사한 형태의 국가/정부 차원의 사업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국립예술기금(NEA)과 민간지원기구인 Americans for the Arts(AFTA)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용적 문화정책과 유사한 방향성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함의를 얻고자 한다.

1) 문화 소외계층 향유 확대 프로젝트 지원 매칭펀드 – ‘Challenge America’ (NEA)[24]

〈Challenge America〉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 문화 소외계층(문화소외지역민, 소수인종,

24)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Challenge America”. 2020. https://www.arts.gov/grants/challenge-america(검색일 2020년 10월 24일)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프로젝트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의 목적은 미국의 우수한 문화예술작품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국가 주도 문화예술 향유정책 사업이다. 매칭펀드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기관은 각각 1만 달러를 지원받게 되며, 선정된 기관은 최소 1만 달러의 지원금을 비연방 주체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아야 한다.

2019년에는 세 가지 형태의 프로젝트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 게스트 예술가 프로젝트 유형으로, 프로젝트에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외부게스트를 합류시켜 협업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게스트는 특정 기관의 조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와 연결된 지역사회의 일원이거나 예술가 등이 추천 대상이었다. 두 번째 유형은 협업마케팅 캠페인 유형으로, 지역 기반 문화예술조직에 도움이 되는 홍보 및 마케팅 기획과 설계, 실행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 마지막 지원 유형은 공공예술프로젝트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프로젝트여야 하며 특히 조각이나 멀티미디어, 환경예술 등과 같이 시각적 영역의 예술 프로젝트가 선호되었다.

2) 유색인종 대상 리더 펠로우십: Arts & Culture Leaders of Color Fellowship (AFTA)[25]

〈Arts & Culture Leaders of Color Fellowship〉은 민간단체인 The Joyce Foundation과 AFTA가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색인종 출신인 신진 및 중견 예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년간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화예술영역에 종사하는 인력의 문화 다양성을

25) American for the Arts, “ARTS & CULTURE LEADERS OF COLOR FELLOWSHIP”, 2020.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about-americans-for-the-arts/cultural-equity/arts-culture-leaders-of-color-fellowship(검색일 2020년 10월 26일)

도모하고,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의 지속 가능한 경력 개발을 돕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 대상은 공식적으로 유색인종이어야 하며, 아프리카, 라틴, 아시안, 아랍, 아메리카 원주민 등이 주요 대상이다. 1년에서 15년 사이의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역량 교육, 네트워킹, 리더십 훈련, 개별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유색인종 출신의 현업 문화예술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3. 호주

호주는 의원내각제의 정치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20개 부처 중 문화예술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은 지방 정부 예술스포츠부(Department of Regional Australia, Local, Government, Arts and Sports)이다. 호주예술위원회(ACA)의 경우 영국(1946)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설립되었는데, 1973년 Whiltlam 총리시절 설립되었으며, 1975년에 예술위원회 법이 통과되며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ACA는 호주 정부의 독립적인 예술 관련 지원 기관이자 자문기구로," 호주의 예술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대중들이 문화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출난 문화작품의 창작, 전시, 향유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6)]

---

26) 임학순·정종은, 「예술위원회 역할체계 비교 분석」, 『한국문화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41-161, 2013.

1) 장애 예술가 멘토링 프로그램 – 'Arts and Disability Mentoring Initiative'[27]

〈Arts and Disability Mentoring Initiative〉는 장애가 있는 개인 예술가 및 예술 노동자들에게 멘토링을 포함한 예술 협업을 지원한다. 멘토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예술가, 또는 장애인 예술가에게 멘토링을 전제로 한 협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장애 예술가 및 예술 노동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가 개인만이 지원할 수 있으며,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만 지원 대상이다. 또한, 장애인 예술가 및 장애인 예술 노동자만 수혜 대상이다.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2년간 30,000 호주 달러(약 2,500만 원)가 지급된다.

본 사업의 지원금은 장애인 예술가들의 협업, 전문 기술 개발, 레지던시 비용, 창작실험, 신작 창작, 창의적 개발, 현장 기반 연구, 홍보 및 마케팅, 여행 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지출될 수 있다. 선발 기준은 제시된 예술 프로젝트의 잠재성과 지원자의 경력, 발전 가능성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2) 장애 예술가 전문성 제고 워크숍 – 'Open Doors Open Minds'[28]

〈Open Doors Open Minds〉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을 앓는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로, 호주 캔버라 주에 있는 Rebus 극단이 국립 장애보험 기관(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과의 협업으로 진

---

27)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ARTS AND DISABILITY MENTORING INITIATIVE 2019-21", 2020.https://www.australiacouncil.gov.au/funding/funding-index/arts-and-disability-mentoring-initiative-2019-21/(검색일 2020년 10월 19일)

28)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PLAYING AUSTRALIA: REGIONAL PERFORMING ARTS TOURING FUND", 2020, https://www.australiacouncil.gov.au/funding/funding-index/playing-australia-regional-performing-arts-touring-fund/(검색일 2020년 10월 21일)

행되었다. 캔버라 주위 5개 도시에서 총 10회의 무료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들은 문화예술영역에서 장애인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였으며,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예술 현장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쌓아나갔다. 장애인 배우와 예술가들이 경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전 역량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둔 해당 프로그램은 이후 관련 기관과 조직을 위한 유료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4. 소결

영국과 미국, 호주 세 국가는 공통적으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예술가와 예술 조직/기관이 문화예술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개발하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돕는 성격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각의 사회적 맥락에서 주류 그룹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적 소수 그룹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 그룹 예술가들의 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워크숍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이 주요 정책사업으로 실행 중이라는 것은 곧 소외계층 출신의 예술가 및 해당 그룹을 대변하는 예술기관/단체들이 특수한 지원 없이는 문화시장 환경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9〉 영국, 미국, 호주, 한국의 장애인/소수인종 예술가/단체 대상 문화정책 사례

지원 대상	사업 내용	사업명
영국(ACE)		
유색 및 소수인종 예술가/단체 지원	리더십 훈련	Change Makers
	극단 지원	Sustained Theatre Fund
	조직 개발	Elevate
장애인 예술가/단체 지원	리더십 훈련	Change Makers
	장애인 중심 작품 개발	Unlimited Ⅲ
	조직 개발	Elevate
미국(NEA, AFTA)		
유색 및 소수인종 예술가/단체 지원	탁월한 예술프로젝트 지원(유색인종,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우선 선발)	Challenge America
	리더십 훈련	Arts & Culture Leaders of Color Fellowship
장애인 예술가/단체 지원	탁월한 예술프로젝트 지원 (유색인종,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우선 선발)	Challenge America
호주(ACA)		
장애인 예술가/단체 지원	장애인 예술가 개인에게 멘토링 및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Arts and Disability Mentoring Initiative
	장애인 예술가들의 실전 역량 훈련	Open Doors Open Minds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장애인 예술가/단체 지원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예술 창작 및 발표 지원	창작 활성화(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장애인 미술가들의 작품 전시·판매 및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기획 공모 사업)
	국내외 장애인 미술가들의 기획 전시 및 협업 프로그램 등 운영	국제 장애인 미술교류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기획 공모 사업)
	장애인 예술가 성장 지원(기성 작가)	잠실창작스튜디오(서울문화재단)

일례로 영국의 ‘Change Makers’ 사업과 같이, 장애인이나 소수인종 예술가들이 중심이 된 기관 내에서 해당 그룹에 속한 예술가들을 위한 리더십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하는 것은 더욱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 소외계층에 속하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 역시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미국 내 유색 인종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던져주는 함의 또한 크다. 소외계층 출신의 예술가 그룹이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오래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해외 국가 정책의 방향성은 '포용'적 정책을 통해 장기적 시각에서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서 살펴본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 내용 중 장애인 예술가 및 단체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사업의 경우, 장애인 예술가의 활동 과정 및 커리어 성장을 지원하기보다 작품의 판매나 전시, 발표 등을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유일하게 장애인 예술가의 커리어 성장을 돕는 정책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예술에 대해 일반적 차원의 수월성이 기대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예술가 및 단체의 활동 역시 '지원 대상'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예술을 단순한 지원 대상, 또는 치료 활동으로 보지 않고 예술적 맥락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예술가 및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Ⅵ. 나가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기존의 문화복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향유 정책의 방식이 그대로 장애인 그룹에 적용되어, 일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발성의 문화예술이벤트나 축제, 공연 등을 기획하도록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장애 예술가 및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사업 역시 장기적 시각에서의 사회투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특정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여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장애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실질적 성장과 시장에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을 돕는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성 작가로 인정받는 장애 예술가들에게 입주 기회를 주고 창작 환경을 마련해주는 서울문화재단의 〈잠실 창작 스튜디오〉가 앞서 살펴본 사례 중 유일하게 장기적 시각에서 장애 예술가의 역량을 키워내고자 하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물론 현행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지금까지 소외되어왔던 장애 예술의 영역이 더 양성화되고, 장애 예술가 및 예술 단체에 중요한 기회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장애 예술인들을 계속해서 '포용'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그들의 창작결과물과 예술적 역량이 사회의 '혁신'적 성장을 주도하는 발판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문화복지 성격의 지원 사업을 벗어나더라도 지속해서 각자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주요사례에서 보듯이 영국과 미국의 장애 예술가와 단체를 위한 지원 사업은 단순히 창작의 기회를 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 예술인 스스로가 주축이 되어 단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하며, 관리자급의 비즈니스 역량을 갖추어 예술가 노동시장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 역시 생애 주기적 접근을 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단발성의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예술가를 국가의 혁신을 이끌 인적자본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장애인의 예술 활동이 비장애인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장애인 예술의 영역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수월성이 요구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의 '포용'적 문화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포용'적 문화정책이 국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회투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장애인들도 예술인으로서 커리어를 충분히 쌓아나갈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쌓일 때, 사회 전반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문화표현 다양성을 높일 것이며, 기존의 주류 문화에서 배제되었던 예술가가 아닌 일반 소외계층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충분한 지원예산 확보는 물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진행되는 기존의 문화예술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주요 해외사례에서 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사업의 주체가 특별히 분리된 장애인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화예술이라는 큰 틀 안에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활동을 실질적인 구성요소로 승인하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혁신적 포용 국가〉가 목표로 하는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이어지는 포용적 문화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참고문헌

조현성·연수현, 「혁신적 포용 국가 달성을 위한 문화정책 발전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유지연, 「Creative Case for Diversity : 영국 문화 다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188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임학순·정종은, 「예술위원회 역할체계 비교 분석」, 『한국문화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41-161, 2013.

최보연, 「영국 문화정책 백서 심층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Leoni. T., "Social Investment as a Perspective on Welfare State Transformation in Europe". *Intereconomics* 51,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pp. 194-200, 2016.

Wren, A. & Iversen, T.,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50(4), pp. 507 - 546, 1998.

American for the Arts, "Statement on Cultural Equity", 2016.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about-americans-for-the-arts/our-statement-on-cultural-equity(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_____, "ARTS & CULTURE LEADERS OF COLOR FELLOWSHIP", 2020.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about-americans-for-the-arts/cultural-equity/arts-culture-leaders-of-color-fellowship(검색일 2020년 10월 26일)

Arts Council England, “Investing in Diversity”, 2016. https://www.artscouncil.org.uk/diversity-and-equality/new-strategic-investment-diversity-and-creative-case#section-1(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_____, “£4.6 million to help diversity flourish”, 2016. https://www.artscouncil.org.uk/news-and-jobs/%C2%A346-million-help-diversity-flourish(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_____, “Elevate”, 2020. https://www.artscouncil.org.uk/funding-finder/elevate(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_____, “Creative People and Places National Evidence Review and Evaluation Report”, 2019. https://www.creativepeopleplaces.org.uk/sites/default/files/CPP%20Evidence%20Review%20and%20Evaluation%20Report%2016_19_0.pdf(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_____, “Creative People and Places”, 2020. https://www.artscouncil.org.uk/creative-people-and-places/(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_____, “Unlimited Ⅲ”, 2019. https://www.artscouncil.org.uk/funding/unlimited-iii#section-1(검색일 2020년 11월 25일)

Arts Access Victoria, “Beyond Access: The Creative Case for Inclusive Arts Practice-Literature Review”, 2015.(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PLAYING AUSTRALIA: REGIONAL PERFORMING ARTS TOURING FUND”, 2020. https://www.australiacouncil.gov.au/funding/funding-index/playing-australia-regional-performing-arts-touring-fund/(검색일 2020년 11월 19일)

_____, “ARTS AND DISABILITY MENTORING INITIATIVE 2019-21”, 2020.https://www.australiacouncil.gov.au/

funding/ funding-index/arts-and-disability-mentoring-initiative-2019-21/(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More than $80 Million in Arts Funding Awarded Across the Nation". 2019. https://www.arts.gov/news/2019/more-80-million-arts-funding-awarded-across-nation(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_____,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nnounces More than $27 Million in Grants Reaching All 50 States, DC, and Puerto Rico", 2019. https://www.arts.gov/news/2019/national-endowment-arts-announces-more-27-million-grants-reaching-all-50-states-dc-and(검색일 2020년 11월 18일)

Meeting of Cultural Ministers. "Research Overview: Arts and Disability in Australia", 2018. https://www.arts.gov.au/sites/default/files/research_overview_of_arts_and_disability.pdf?acsf_files_redirect(검색일 2020년 11월 25일)

UNESCO, "Freedom and Creativity: Defending Art, defending diversity". Special Edition 2005 Convention Global Report Series, 2020. https://en.unesco.org/creativity/publications/freedom-creativity-defending-art-defending(검색일 2020년 11월 18일)

_____,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2018. http://uis.unesco.org/sites/default/files/documents/reshaping-cultural-policies-2018-en.pdf(검색일 2020년 11월 23일)

〈ABSTRACT〉

A Study on Cultural Policies for Supporting Inclusive & Innovative Growth -Focusing on Policies to Support Disabled Artists-

An, Chairin

A discussion of ‘inclusive cultural policy’ supporting the inclusive & innovative growth presented by the president Moon Jae-in is becoming more crucial. However, it seems that there has yet to be sufficient agreement on what direction and content the “inclusive cultural policy” should have in detail. This study is a preliminary discussion on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inclusive cultural policy” needed for an inclusive-innovative country. First, the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inclusive and innovative country’ and looked around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support for the disabled, which has been the most active discussion related to “inclusive art” to date,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in related fields. The study then looked at examples of policies to support the disabled and minorities in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where have been using concepts such as inclusion, diversity, equity, and equality in cultural policies much earlier, and looked at the contents of policy support for underprivileged artists who should be supplemented for the construction of an ‘inclusive-innovative’ nation. The study found that state-led support for disabled and minority artists in developed countries did not merely open up opportunities for creation or increase opportunities for enjoying culture and arts, but

continued various policy attempts to help artists grow their careers. Based on these observations, the current study highlighted the need for policy devices to help disabled and underprivileged artists grow their leadership and careers as part of an ‘inclusive’ cultural policy that could lead to national innovation.

Key Words : Inclusive Innovative Growth, Inclusive Culture Policy, Cultural Policy for the Disabled, Artists with Disabilities, Cultural Welfare Policy